

울트라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

-우에하라 쇼조 「괴수술사와 소년」을 중심으로-

임상민*
y3k76@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울트라맨의 메타포 | 4. 울트라맨의 좌절과 밀수되는 '미국' |
| 2. 시크릿 메시지와 '가와사키' | 5. 나오며 |
| 3. 우주선 찾기와 국적 찾기 | |

主題語: 울트라맨(Ultraman), 재일조선인(Koreans Residents in Japan), 국적변경문제(Naturalization Issues), 시크릿메시지(Secret Message), 가와사키(Kawasaki)

1. 들어가며 - 울트라맨의 메타포

『돌아온 울트라맨(帰ってきたウルトラマン)』(TBS, 1971년 4월 2일-1972년 3월 31일, 전51화)은 1966년에 방영된 제1탄『울트라맨(ウルトラマン)』과 1967년에 방영된 제2탄『울트라세븐(ウルトラセブン)』에 이어 세 번째 울트라맨 시리즈로 제작된 특수촬영물 드라마이다. 특히, 본고에서 고찰을 하는 『돌아온 울트라맨』 제33화 「괴수술사와 소년(怪獣使いと少年)」(1971년 11월 19일 방영)은 울트라맨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인간 내면의 광기를 그린 걸작’,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의 폭주를 그린 걸작¹⁾’으로 울트라맨 팬들에게는 현재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돌아온 울트라맨』의 기본적인 이야기 패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평화기구 지구방위청 소속 일본지부 괴수공격부대 ‘MAT(Monster Attack Team)’가 거대 괴수의 폭주나 외계인의 침략으로부터 시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는데, 괴수나 외계인의 위협에 MAT의 힘만으로 대항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때 MAT를 돕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빛의 거인’ 울트라맨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패턴은 제1탄『울트라맨』과 제2탄『울트라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1) 円谷プロダクション(2009.7)『ウルトラガイドブック』笠倉出版社, p.191

세븐』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구조인데, 문화 비평가 우노 츠네히로(宇野常寬)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국가의 폭력=군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냉전하의, 그것도 60년대의 래디컬리즘, 정치의 계절이다. 그런 시기에 고도성장기의 일본의 마을을 습격하는 괴수나 외계인은 이른바 동아시아 주변국의 침공군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 조직되었지만 언뜻 봐도 전력이 뒤쳐지는 <과학특수대>나 <울트라경비대>라고 하는 방위조직은 일본의 자위대, 그리고 방위조직을 대신해서 침략자를 퇴치해 주는 우호적인 외계인=울트라맨과 울트라세븐은 재일미군이라고 하는 구도가 성립된다.²⁾

제1탄과 제2탄에 등장하는 괴수나 외계인은 ‘동아시아 주변국의 침공군(=공산주의 국가)’, 지구를 지키는 방위조직은 ‘일본자위대’, 그리고 울트라맨은 ‘재일미군’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노 츠네히로의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와 군대라고 하는 동시대의 대문자 정치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메타포로 해석되어 온 ‘동아시아/일본/미국’이라고 하는 삼각구도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즉, 1960년대의 ‘정치적 계절’이 막을 내리고 고도경제성장의 뒤틀림 현상으로 발생하는 공해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괴수’와 ‘울트라맨’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는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려워지고, 괴수 또한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공해에 의해서 눈을 뜬 존재로 설정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울트라맨 역시 더 이상 절대적인 정의를 인간사회에 구현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일본인의 풍요로운 도시 생활의 ‘부채’를 처리하는 존재로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공투 세대의 학생운동 종언(1968년-1969년)과 1970년의 안보조약 반대투쟁의 종언 등, 동시대의 정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1970년대 초에 제작된 『돌아온 울트라맨』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일본/미국’이라고 하는 삼각구도 속의 ‘동아시아’ 위치에 왜 재일조선인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당시 ‘국적 선택의 자유’(세계인권선언 15조)에 입각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국적을 선택하려고 했던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와 제33화「괴수술사와 소년」을 상호 교섭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2000년에 일반 공개된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에 관한 한국정부의 외교문서를 경유하면서 울트라맨 이야기를 ‘한국/재일조선인/일본/미국’이라고 하는 중층적인 관계 속에서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宇野常寬(2011.10)『リトル・ピープルの時代』幻冬舎, p.166

2. 시크릿 메시지와 ‘가와사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33화 「괴수술사와 소년」은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의 폭주를 그린 걸작’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울트라맨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질적인 존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정하려고 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시나리오와 영상화된 드라마의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해석하는냐에 따라서 상당수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카와 쇼(会川昇)는 시나리오와 영상의 불일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팬에게 인기 높은 작품을 선정해서 실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 울트라맨 「괴수술사와 소년」(시나리오 원재·그대가 향하는 머나먼 별(キミがめざす遠い星)을 제외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영상화된 작품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각본은 조금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300년간의 복수」의 선상에 있는 이 명작은 우에하라 씨가 주저하면서도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어 오키나와 등의 문제를 강하게 그린 사실상 마지막 작품이고, 그런 의미를 파악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도조 쇼헤 감독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각본과 영상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실도³⁾

물론 아이카와 쇼뿐만 아니라 가미야 가즈히로(神谷和宏) 역시, 「괴수술사와 소년」은 그런 오키나와의 문제, 즉 차별, 박해받은 자의 비극과 소수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 정의를 휘둘러 집결시키려는 가짜 정의에 내포된 기만을 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⁴⁾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동 작품의 시나리오를 담당한 우에하라 쇼조(上原正三)가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에 ‘오키나와’를 대입시켜 우에하라의 전기적인 작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동 시나리오의 감독을 담당한 도조 쇼헤(東條昭平)는 문화 비평가 기리도시 리사쿠(切通理作)와의 인터뷰에서 ‘우에하라 씨는 오키나와인 이미지로 썼다고 생각한다. 당시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지에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오키나와인이라기 보다는 조선인이죠 저건. 소년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고⁵⁾’라고 말하고 있듯이, 동 작품에 대해서 ‘오키나와’보다는 ‘조선인’에 방점을 찍고 해석하고 있다. 도조 감독의

3) 会川昇(1985.3)「尽きぬ上原作品の魅力」『24年目の復讐 上原正三シナリオ傑作集』朝日ソノラマ, pp.432-433

4) 神谷和宏(2011.7)『ウルトラマンと「正義」の話をしよう』朝日新聞社, p.145

5) 切通理作(2000.6)『怪獣使いと少年』宝島社, p.205

위와 같은 발언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괴수술사와 소년」의 시청자를 ‘내지’와 ‘외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콘텍스트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전혀 다른 콘텍스트 제작 단계에 도죠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둘째는 주인공 소년의 얼굴에서 ‘조선인’을 읽어내고 있는 점이다. 즉,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특정한 표상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특정 일부의 사람들은 민감하게 포착·수신할 수 있는, 이른바 ‘시크릿 메시지’⁶⁾가 드라마 속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죠 감독은 도대체 어떻게 소년의 얼굴에서 바로 ‘조선인’을 수신할 수 있었을까? 드라마 속 소년의 얼굴이 치켜 올라간 눈썹리와 흘꺼풀의 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인’ 이미지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치켜 올라간 눈썹리와 흘꺼풀만으로 ‘조선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나 드라마 속에서 고아 소년 사쿠마 료(佐久間良)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료 소년이 주위의 불량학생들에게 ‘외계인’ 취급을 당하자, MAT 대원 고히데키(郷秀樹=울트라맨으로 변신하는 인물)가 현지 조사를 통해 그의 고향이 홋카이도(北海道) 예사시(江差)이며, 부모 역시 모두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국적이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조선인’으로 인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시크릿 메시지’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동 작품을 분석하면, 의외로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1971년 11월 19일에 방영된 「괴수술사와 소년」의 시대적 배경은 동 작품이 방영되기 1년 전인 ‘1970년’이며, 무대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川崎)이다. 우주의 메이트 별(メイツ星)에서 지구의 풍토와 기후를 조사하러 온 가나이마 쥬로(金山十郎, 시나리오에는 ‘45세’라고 되어 있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주 조시원은 가와사키의 강가에서 괴수·무르치(ムルチ)에게 쫓기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료 소년을 구해 준다. 그리고 초능력을 이용해서 무르치를 땅에 묻고, 자기가 타고 온 우주선도 함께 땅에 숨겨둔다. 하지만 지구의 공해오염으로 가나이마 노인은 병이 들고 결국 초능력도 쓸 수

6) 野村進(1996.12)『コリアン世界の旅』講談社, p.9. 노무라 스스무에 의하면 패전 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역도산의 존재는 미국인 콤플렉스를 해소시켜 주는 ‘국민적 영웅’이었지만, 그의 국적을 조선으로 알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에게는 ‘국민적 영웅’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즉, 재일조선인들은 역도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신체에게서 일본인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없게 되는데, 료 소년은 그런 가나야마 노인과 지구를 떠나 메이트 별로 가기 위해 우주선을 묻어둔 장소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땅을 파헤친다. 하지만 불량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까지도 료 소년을 ‘외계인’으로 간주하고 집단폭행을 가하게 되는데, 우주선을 찾는 료 소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소년이 열심히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보인다. 료 소년이다. 폐허의 이곳저곳에 료가 판 듯이 보이는 구덩이가 있다. 이 일대는 원래 자갈 채집장인 듯, 공장과 같은 큰 건물, 차고, 식당 등의 건물이 황폐해진 채 잔해만이 남아 있다. 그 옆을 큰 강이 흐르고, 또 바로 아래 하류에는 무지개와 같은 고속도로가 놓여져, 자동차가 무기물질과 같이 소리 없이 달리고 있다.

지로 “(소리를 죽이고)저 아이가 외계인이야?”

시로 “(고개를 끄덕이며)아이로 변신을 했다. 초능력을 쓴다고 하던데?”

도조 감독이 소년의 얼굴에서 ‘조선인’을 수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소년의 얼굴이 ‘조선인’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소년의 얼굴을 ‘조선인’으로 인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 료가 살고 있는 곳은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공해오염의 직격탄을 맞아 폐허가 된 ‘가와사키’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와사키’와 빈민촌, 그리고 료 소년과 ‘부모자식’처럼 살고 있는 ‘가나야마(金山)’라고 하는 노인의 이름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라는 것이다.

가와사키시(川崎市) 가와사키쿠(川崎区) 이케가미초(池上町)는 교하마(京浜) 공업지대의 일각, 산업도로와 고속도로로 구분된 부분에 있고, 인구 약 1500명 중에 약 60퍼센트를 한국·조선인이 차지하는 제일한국·조선인 다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1960년(쇼와35)의 주택지구개발법 제정에 관련해서 실시된 가나가와현의 「주택지구실태조사보고서」에도 불량주택지구로 올라와 있는 이 마을은, 23년 후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 후의 고도성장이 초래한 공해오염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당시보다도 한층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략)이러한 일종의 슬럼화된 상황은 전전부터 「조선인 다중지역과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문제화되어 왔지만, 당연히 그것은 도시방재나 위생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 것이었고, 오히려 생활보장을 위한 주택문제로써는 간주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불량주택지구의 형성은 전전·전후의 가나가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성립되어 온 것이다.⁸⁾

7) 上原正三(1985.3)「キミがめざす遠い星」『24年目の復讐 上原正三シナリオ傑作集』朝日ソノラマ, p.311 이하 본문 인용은 동 시나리오에 의함.

8) 神奈川県自治総合研究センター(1984.2)『神奈川の韓国・朝鮮人』公人社, pp.103-104

위 자료는 가와사키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과 그곳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의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인데, 가와사키는 전전부터 ‘조선인 다주지역과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특히 고도성장 이후에는 공해오염 등으로 슬럼가가 형성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동 작품 속에서 고속도로를 뒤로 공장의 잔해와 폐허가 클로즈업되는 장면은 동시대의 가와사키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의 ‘60퍼센트’가 재일조선인, 즉 10명 중에 6명이 재일조선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인의 ‘金’이라고 하는 성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金山(가나야마)’ 노인의 성 역시 조선인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이트 별에서 온 가나야마 노인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인간의 얼굴을 하고 가와사키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계인, 지금의 지구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염된 공기로 몸이 병들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외계에서 온 가나야마 노인의 병은 지구의 ‘오염된 공기’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 역시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동시대의 가와사키가 일본의 고도성장이 초래한 공해오염으로 인한 공해병 다발지역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지역이었고, 1972년부터 1982년까지의 ‘외국적공해인정환자’ 총수 163명 중에 159명¹⁰⁾이 재일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병중에서 ‘오염된 공기’라고 하는 공해병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설정은 ‘가나야마’라고 하는 노인의 이름과 더불어 동시대에 가와사키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는 시크릿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크릿 메시지의 분석을 통해 소년 료의 얼굴과 가나야마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가와사키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이 가지는 동시대적 의미를 복원시킴으로써, 비로써 료 소년을 괴롭히는 불량소년들로부터 “우리들 인간님들에게는 저런 식의 얼굴은 없지” “저런 얼굴은 말이야”라고 하는 대사와 옆질러진 밥을 주워 담는 료 소년의 손을 뭉개 밟는 불량소년들의 ‘나막신(下駄)’이 클로즈업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질적인 존재’가 오키나와인이라면 료 소년의 손을 뭉개 밟는 신이 굳이 나막신일 필요는 없다(실제로 시나리오에는 료 소년의 얼굴에 대한 설명과 나막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일본/오키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막신이 가해자로서의 일본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작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또한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흘꺼풀의 소년 료의 얼굴 역시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9) 주 7과 동일 p.322

10) 주 8과 동일 p.113

3. 우주선 찾기와 국적 찾기

그렇다면 소년 료의 우주선 찾기는 동시대의 콘텍스트 속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할까? 먼저 드라마 속에서 료 소년은 얼굴의 생김새와 매일 같이 여기저기 구덩이를 타는 행동 때문에 주위의 불량소년들에게 외계인 취급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은 단순한 픽션이라기보다는 동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재일조선인 학생에 대한 일본인 불량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1970.5.—1970년에 들어와서 동경조고생(東京朝高生)에 대한 일본 우익 불량학생에 의한 집단 폭행 사건은 신쥬쿠역에서 1월 17일, 1월 30일, 2월 11일, 료코쿠역에서 1월 21일, 아키하바라역에서 2월 11일, 이케부쿠로역에서 2월 27일, 5월 14일, 5월 18일, 아카바네역에서 3월 11일, 3월 13일, 쥬조역에서 3월 12일, 3월 13일, 오다큐신쥬쿠역에서 5월 12일, 5월 14일, 다카다노바바역에서 5월 15일, 오지역에서 5월 16일, 요요기역에서 5월 18일, 5월 25일, 시부야역에서 5월 18일, 히라이역에서 5월 21일, 긴시쥬역에서 5월 22일 등, 총 21건에 이르렀고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몇 배의 건수에 달한다.

1970.5.27—조선학생에 대한 연속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동경 조선인 학부형 대회가 개최되고, 대회에서 일본 경찰에 차별 없는 공정하고 철저한 가해자 조사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일본정부에 제출. 학교는 학생들을 조퇴시키고, 교사 및 학부형들은 각 역에서 경계 태세에 돌입할 것을 결의.¹¹⁾

제33화 「괴수술사와 소년」이 방영된 날짜는 1971년 11월 19일이고, 드라마 속에서 메이트 성인 가나야마 노인이 지구에 온 것은 ‘1년 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이 ‘부모자식’처럼 함께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70년’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970년에는 5월에만도 동경 곳곳에서 재일조선인 학생에 대한 일본인 불량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재일조선인 학부형에 의한 항의문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고, 또한 교사와 학부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역에 나가 경계 태세에까지 돌입할 정도였으니, 일본 불량학생들의 집단폭행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동시대의 콘텍스트를 경유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료 소년이 우주선을 찾는 이유를 말하는 장면에 주목을 해 보면, “지구는 머지않아 사람이 살 수 없게 돼. 그 전에 지구에게

11) 姜徹編著(2002.7)『在日朝鮮韓國人史綜合年表』雄山閣, p.454

안녕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대사는 동시대의 불량학생들의 집단폭행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재일조선인을 클로즈업시킨다. 그리고 결국, 료 소년과 가나야마 노인은 그의 고향·메이트 별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본 국적의 료 소년이 가나야마 노인과 함께 그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국적을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나야마 노인 역시 무르치에게 쫓기다가 '공포와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져 있는 료 소년을 구해 준 이래, "료하고 마치 부모자식과 같이 지냈다. 저는 이대로 지구에 살아도 괜찮다고조차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가나야마 노인 역시 국적을 변경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료 소년은 '일본' 국적에서 '메이트' 국적으로 그리고 가나야마 노인은 '메이트'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국적을 변경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동 작품은 단순히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의 폭주'를 다룬 작품이라기보다는, 료 소년과 가나야마 노인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국적을 변경하려는 것을 일본인의 '집단적 무의식'이 저지하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선 찾기는 동시대에 전개되고 있었던 다음과 같은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와 접점을 보인다.

60년대 재일조선인의 국적문제는 70년의 정치상황을 깊은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한일 양 정부 및 거류민단은 일한 법적지위협정을 토대로 영주권 신청(「한국적」취득을 조건으로)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71년 1월의 신청 기한 마감일 가까이에 매수와 협박에 가까운 수단을 취하며 한국 국적 증대를 도모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과 일본의 혁신 세력은 이것을 「조국을 선택할 자유」의 침해라며 항의를 했고, 부당하게 한국 국적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조선 국적으로의 변경 신청 및 그 지원 운동을 전개했다.¹²⁾

1965에 체결된 한일 법적지위협정이란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국적란에 '한국'으로 기재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조선' 국적의 재일조선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대조치를 해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마감일이 「괴수술사와 소년」이 방영된 같은 해의 1971년 1월 16일까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 수는 재일조선인 60만 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고, 당시 일본정부는 일단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재일조선인은 재차 '조선'으로 국적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시의 아이치 기이치(愛知揆一) 외무부장관은 '외무성과 법무성, 양성파 더불어 자치성을 포함해서 협력 촉진의 태세를 굳히겠다'¹³⁾라는 약속까지 하게 된다.

12) 津村喬(1971.4)「田川市—<在日>の基本構造·序説」『現代の眼』, p.108

그런데 1970년 8월 13일에 후쿠오카현(福岡県) 다가와시(田川市) 의 사회당 출신 사카타 구츠모(坂田九十百) 시장은, 국적변경은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을 한 위탁사무이고, 또한 헌법 제22조의 ‘국적 이탈의 자유’와 세계인권선언 제15조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1970년 8월 14일에 5세대 14명의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정부의 허락 없이 ‘한국’에서 ‘조선’으로 국적변경을 인정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카타 시장은 국적변경은 ‘당연한 의무’이며, ‘나에게 있어서 조선인 문제는 속죄의 마음도 담겨져 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이론이 아니라,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1970년 11월 24일에 열린 시의회 대표자 회의에서는 ‘재판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법해석의 차이, 인도적 입장을 지키는 것 외에는 무엇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¹⁴⁾라고 하며, ‘법해석의 차이’와 ‘인도적 입장’에서 국적변경을 단행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카타 시장은 정부와 정면대결 구도를 취하게 되고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일본 정부와 맞서며 재일조선인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도와주는 사카타 시장의 모습은 드라마 속 고히데키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울트라맨으로 변신하는 MAT 대원 고히데키는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이 침략자가 아니라 는 사실을 확인하고, 료 소년의 우주선 찾기를 도와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량소년들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까지 나서서 료 소년에게 집단폭행을 가하며 연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병들어 폐허 속에 숨어있던 가나야마 노인이 료 소년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모습을 나타내는데, 마을사람들은 병들어 얼굴이 일그러진 가나야마 노인 역시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폭행을 가하려 한다. 이때 도 역시, 고히데키는 마을사람들에게 “그만둬,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해. 그냥 돌려 보내 주세요요”라며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의 편에 서서 들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히데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가나야마 노인은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게 된다. 가나야마 노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염력으로 땅에 묻어둔 괴수·무르치의 봉인이 풀리게 되고, 공포에 질린 마을사람들은 MAT 대원 고히데키에게 괴수 퇴치를 요청한다. 하지만 고히데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괴수를 불러낸 것은 당신들이야! 저건 마치 가나야마 씨의 분노가 옮겨간 것 같다”라고 거절을 한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에 외교통상부가 일반 공개한 다음과 같은 외교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3) 宮崎繁樹(1971.1)「在日朝鮮人の国籍登録変更—「韓国」籍から「朝鮮」籍書換えをめぐる—」『法律時報』, p.57

14) 和田英夫(1971.5)「住民と国籍選択の自由—田川市の国籍書換え問題」『法学セミナー』, pp.76-77

- 1 永住權 申請 促進에 對抗하여 朝總連이 今年 봄부터 推進하였음.
- 2 約四万名의 朝連系 僑胞가 永住權 申請을 爲하여 駐日大使館의 確認을 얻어 「韓國」籍으로 變更한 것이 直接的인 動機임.
- 3 朝總連 僑胞 2,000余名은 今年 8月初에 國籍 變更 申請을 地方 自治團體에 提出함. (중략)
- 5 革新系가 市長으로 되어 있는 兵庫縣 田川市는 法務省 通達을 無視하고, 國籍 變更을 許容하였음. (8月初)¹⁵⁾

한국의 외교문서를 보면,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재일조선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선택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적변경 문제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영주권 신청을 저지하기 위한 ‘조총련’과 좌익 시장의 주도하에 벌인 방해공작으로밖에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정부는 ‘자유진영/공산진영’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자유진영인 한국의 우위성을 과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포지션은 국적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포지션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결과적으로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밖에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의 고향 찾기의 선택권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을 도와주는 고히데키는 한국 정부와는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을사람들의 구조 요청에도 괴수 퇴치를 거절했던 MAT 대원 고히데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이다.

4. 울트라맨의 좌절과 밀수되는 ‘미국’

고히데키는 괴수·무르치의 등장을 가나야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것으로 파악하고,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냇이 나간 채 무르치가 마을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탁발승의 모습으로 변신한 이부키(伊吹) MAT 대장이 나타나, “고! 마을이 큰 일 났다. 고! 모르겠어?”라는 한마디에 좌절을 이겨내고 울트라맨으로 변신을 해서 무르치를 퇴치하는 대반전이 일어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탄 『돌아온 울트라맨』에서는, 제1탄 『울트라맨』과 제2탄 『울트라세븐』과는 다르게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울트라맨으로 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15) 외교통상부(2000) 『朝總連이 推進하고 있는 在日僑胞 國籍을 「朝鮮」으로 變更하는 問題』 『재일교민의 외국인등록 국적란 변경문제, 1970』 외교통상부, p.262

다. 『돌아온 울트라맨』 제1화를 살펴보면,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고히데키가 울트라맨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괴수의 습격으로 아파트가 파괴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보다는 타자, 즉 붕괴된 건물에 깔린 소년과 강아지, 그리고 비둘기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용감한 행동이 지구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한 울트라맨은 죽은 고히데키의 몸에 빙의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히데키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간단히 변신할 수 없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소년과 강아지, 그리고 비둘기를 구했듯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바랄 때에만 변신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볼 때, 일단 괴수·무르치 퇴치를 포기하고 좌절했던 고히데키가 울트라맨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노 츠네히로가 『돌아온 울트라맨』에서의 고히데키의 변신은 ‘인간이 성장해서 초월자가 되는 이야기를 지향’¹⁶⁾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 고히데키(=일본)가 ‘초월자(=미국)’로 변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히데키는 심정적으로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에게 기울어져 있고, 그런 가나야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무르치를 퇴치할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탁발승으로 변신한 이부키 대장이 “고! 마을이 큰 일 났다. 고! 모르겠어?”라고 하는 대사인데, 이 또한 고히데키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의 간절함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된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이야말로 동시대의 국적변경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법정 싸움을 각오하고 변호사와 의견교환(1971년1월)까지 했던 사카타 시장은, 아래와 같은 정부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극적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

- ① 「경사방식(經伺方式)」으로도 문제가 없는 10명에 대해서는 법무성이 자주 변경을 추인한다.
- ② 한국 여권의 발급을 받은 이판복(李判福) 씨 일가 4명은, 『한국』으로 다시 정정해서 경사, 법무성에서 검토한다. ③ 직무집행 명령은 철회한다.¹⁷⁾

타협안에 나오는 ‘경사방식’이란 동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독단으로 판단·처리하지 말고, 일단 정부에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업무방식이다. 즉, 지금까지 ‘경사방식’에 반대를 하며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을 단행했던 사카타 시장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명’ 중 이판복 일가 ‘4명’의 국적을 다시 본래대로

16) 주 2와 동일, p.180

17) 出版部(1971.4)「朝鮮人国籍—「田川方式」の決着」『世界』, p.122

‘한국’ 국적으로 되돌린다는 조건하에 극적으로 정부와 타협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카타 시장의 타협에 대해서 ‘조선 국적 문제에서의 사카타 시장의 자세는 칭찬할만한 저항정신’¹⁸⁾이었으며, 정부의 직무집행 명령을 ‘4명 이외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형태로 사실상 철회시킨 것은 사카타 시장의 공적’이라고 하며 ‘수장의 판단으로 행하는 자주 변경의 길을 열었다’¹⁹⁾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묵인’에서도조차 배제당한 일가 ‘4명’의 가장인 이판복은 다음과 같이 그 속내를 토로하고 있다.

이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가와시(田川市) 시장이 변경을 하면, 그것은 내 국적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국적은 내 영혼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가와 시장을 국적 도둑, 영혼의 도둑으로 만들 작정입니까?²⁰⁾

타협 전의 사카타 시장은, 국적변경은 ‘남자와 남자의 약속이다’라고 하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타협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직무집행 명령을 철회시키고, 지자체 독자의 판단에 의한 변경을 인정시키는 돌파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이다’²¹⁾, ‘90퍼센트 상쾌한 기분’²²⁾이라고 말할 때, ‘90퍼센트’ 안에 들지 않은 이판복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카타 시장의 ‘인도적 입장’에서의 투쟁은 좌절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카타 시장의 타협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관행정과 외국인등록 행정, 정부의 통달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그리고 국적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재판을 통해 정면에서 그 시비를 가릴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헨데키가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에게 ‘인도적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도 마지막까지 들의 입장에 서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부키 MAT 대장의 명령에 따라 가나야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무르치의 퇴치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즉, 고헨데키의 변신은 사카타 시장의 타협과 일치하며, 무르치의 죽음은 사카타 시장의 타협으로 국적변경에서 배제된 이판복 일가와 일치한다.

그런데 사카타 시장의 대반전은 오로지 시장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왜 이부키 대장은 탁발승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났을까 라고 하는 점이

18) 小迫成明(1971.4.30)「田川市 国籍書換えで対決」『朝日ジャーナル』, p.110

19) 주 17과 동일, p.122

20) 長塚記者(1971.2.19)「急転した田川市の国籍書換え問題」『週刊朝日』, p.40

21) 出版部(1971.2.12)「大国主義的 "ボス交" で処理」『朝日ジャーナル』, p.107

22) 주 12와 동일, p.109

다.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이부키 대장은 MAT 대원의 유니폼을 입고 지프를 타고 등장하고 있는데, 영상 제작 단계에서 탁발승의 모습으로 설정이 바뀌게 된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탁발승의 모습으로 변신한 이부키 대장의 모습을 고히데키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시청자들은 고히데키가 괴수를 퇴치하러 달려가는 뒷모습을 샷샷을 지켜 올리며 의미심장하게 웃는 이부키 대장의 모습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고히데키의 좌절을 반전시킨 것이 이부키 대장이라는 사실을 고히데키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도조 감독은 시나리오에도 없는 장면을 왜 이렇게까지 부자연스럽게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고히데키의 반전과 사카타 시장의 타협, 그리고 배제당한 이판복을 동시대에 전개되고 있었던 국적변경 문제와 링크시켜 보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국적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은 단순히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유착이 만들어낸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가지면서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외국인등록령 시대의 제1기, 1950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외국인등록법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후의 제2기, 1965년에 일한조약과 법적지위협정에 의해서 한국 측에만 그 지위를 약속한 제3기를 경과해서, 협정에 의한 영주권 신청 기간이 끝나는 1월 16일부터 법적지위의 ‘분열’이 유착된 제4기에 접어들었다. 그 ‘국적’에 대한 취급도 이 시대구분을 따라 변천한다. 하지만 근처에 깔려 있는 사상은 GHQ의 점령정책의 답습과 조선반도 분열의 가담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위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일조선인의 국적문제에 깔려 있는 사상은 다름 아닌 ‘GHQ의 점령정책’이 밀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은 1947년 5월에 제정된 ‘외국인등록령’에 의해서, 모든 재일조선인의 국적은 ‘조선’으로 통일된다. 그런데 조선전쟁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인 1950년 3월에 자유진영의 결속을 꾀한다는 GHQ(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주장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사에게 국적란 표기를 ‘한국’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서류 없이도 본인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만으로도 변경을 해 주겠다는 통달(법무총재담화)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한일조약 체결을 눈앞에 둔 1963년 12월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 국적에서 ‘조선’ 국적으로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달을 통보하는데, 물론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변경은 자유롭게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계 때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표기는 ‘국적’이 아닌 단순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일조약이 조인·비준된 1965년 10월에는 “‘한국’은 국적이지만, ‘조선’은 부호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만으로 “‘한국’에서 “‘조선’으로

23) 주 17과 동일, p.119

변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²⁴⁾라고 하는 통일견해를 발표하게 된다.

가고시마대학(鹿児島大学) 교수 하기노 요시노(萩野芳夫)는 ‘1950년에 연합국군총사령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리하게 “한국”이라고 하는 표기를 도입한 것이 곤란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²⁵⁾’라고 지적하며, 1952년에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재일중국인의 외국인등록 국적란의 표기를 ‘중화민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일본 법무성은 만약 ‘중화민국’의 표기를 도입하면 장래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거절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한국’만을 ‘국적’으로 인정한다는 1965년의 정부의 통일견해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950년의 ‘외국인등록법’ 이후로 국적을 단순히 ‘부호’라고 말해왔는데, 1965년에 한일조약이 비준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한국’은 ‘국적’이고, ‘조선’은 ‘부호’라고 하는 정부의 통일견해가 발표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오카다(岡田) 입관리국 참사관은 ‘확실히 저건 좀 이상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표명한 이상, 국적(『한국』)에서 용어(『조선』)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바야시(小林) 법무부 장관도 ‘어쨌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견 누가 들어도 너무 이상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재의 처리로써는... 이력저력 여기까지 와 있다²⁶⁾’라고 말하고 있듯이, ‘누가 들어도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이력저력’ 시행해 온 것이 다름 아닌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이었던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 탁발승으로 변신한 이부키 대장의 정체를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고히데키만 모르는 설정은,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이 ‘누가 들어도 너무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과 일치한다. 또한 좌절한 고히데키에게 공격을 명령한 이부키 대장의 포지션이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평화기구 지구방위청 소속 일본지부의 대표라는 사실은, MAT의 최고 정점에 ‘미국’이 있다는 점에서 이부키 대장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에게 국적 분열을 고정화시킨 GHQ의 포지션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울트라맨이 가나야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괴수·무르치를 퇴치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수세와 공세를 반복하던 울트라맨은 무르치를 땅에 내동댕이친 후, 무르치의 주둥이를 위 아래로 찢고 또한 주둥이 주위에 난타를 가하며 제압을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주둥이를 찢는 울트라맨의 공격 형태는 재일조선인이 자신의 의지에

24) 주 20)과 동일, p.42

25) 萩野芳夫(1971.1)「在日朝鮮人の国籍登録変更—「韓国」籍から「朝鮮」籍書換えをめぐる—」『法律時報』, p.60

26) 山田恒史(1970.10.11)「“入管法”を前に朝鮮人問題を考える」『朝日ジャーナル』, p.12

따라서 국적을 변경할 수 없는 억압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주둥이가 찢길 때 나는 무르치의 비명소리는 일단 ‘조선’ 국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재차 ‘한국’ 국적으로 변경을 당한 이판복 씨가 ‘시장은 왜 당사자인 나에게는 말고 없이, 다시 ‘한국적’으로 돌려놓았을까. 더 이상 우리들의 국적을 정치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만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²⁷⁾라고 하며 제일조선인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영혼(=국적)’을 잃어버린 말 없는 자의 절규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5. 나오며

우리들은 흔히 반공주의와 반공교육 등의 과거 냉전체제 하의 문화에 대해서 공론화할 때, “그 때는 시대가 시대였으니까”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한다. 물론 이러한 논리에도 동시대의 정치권력을 비판적으로 사유한다는 의미에서 일면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반공’이라는 말을 전제로 과거를 사유하려고 할 때, ‘반공’과 정부와의 구체적인 관계성은 경시되고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사고만이 증식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때는 시대가 시대였으니까”라고 하는 문맥에서 거론되는 ‘반공’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국가만을 비판하는 언설로 슬라이드되어, 역설적으로 일반 시민은 ‘반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면죄부를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식시킨다는 점이다. 중요한 점은 대문자 ‘반공’이라는 말을 갖대로 과거를 단락적으로 옹고 그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반공’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맥들과 충돌·교섭하는지를 다양한 국면에서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돌아온 울트라맨』 제33화 「괴수술사와 소년」은 현재까지도 많은 울트라맨 팬들에게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의 폭주를 그린 걸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특수촬영물 드라마이다. 1966년에 방영된 제1탄 『울트라맨』을 시작으로, 울트라맨 시리즈는 냉전 체제 하의 ‘동아시아/일본/미국’이라고 하는 삼각구도를 비유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해석되어 왔다. 특히, 동 작품의 시나리오를 담당한 우에하라 쇼조가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에 오키나와를 대입시켜 우에하라의 전기적인 작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동 작품을 연출한 도조 쇼헤 감독은 우에하라의 의도와는 달리, 동 작품은 ‘내지’의

27) 주 20과 동일, p.43

많은 시청자들에게는 ‘조선인’ 문제로 비추어졌다고 말한다. 특히, 드라마 속 료 소년의 얼굴은 ‘조선인’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특정한 사람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특정 일부의 사람들이 민감하게 포착·수신할 수 있는 ‘시크릿 메시지’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도조 감독은 연출 단계에서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조선인’을 수신할 수 있는 장면을 드라마 속 곳곳에 배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료 소년과 ‘부모자식’처럼 살고 있는 메이트 별에서 온 조사원의 이름이 조선인을 연상시키는 가나이마(金山)라고 하는 점과 이 둘이 살고 있는 곳이 10명 중에 ‘6명’이 제일조선인으로 구성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川崎)’라고 하는 마을이라는 설정은 ‘시크릿 메시지’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다름 아닌 제일조선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나이마 노인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원인은 지구의 ‘오염된 공기’로 인한 공해병 때문인데, 동시대의 가와사키가 일본의 고도성장이 초래한 공해오염으로 인한 공해병 다발지역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지역이었고, ‘외국적공해인정환자’ 총수 163명 중에 159명이 제일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동 작품은 ‘오키나와’ 문제가 아닌 ‘조선인’ 문제를 다룬 드라마로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나이마 노인과 료 소년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주선을 찾는 모습을 동시대의 콘텍스트에서 생각해 보면, 제일조선인이 ‘국적 선택의 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국적에서 ‘조선’ 국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려는 문제와 접점을 보인다. 당시의 한국 정부는 국적변경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영주권 신청을 저지하려는 조총련과 좌익 시장의 방해공작으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드라마 속에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우주선을 찾는 료 소년과 가나이마 노인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모습과 오버랩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일하게 울트라맨으로 변신하기 전의 MAT 대원 고히데키만은 둘의 우주선 찾기를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제일조선인의 국적변경을 ‘도의적 입장’에서 인정을 한 다가와시의 사카타 시장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사카타 시장 역시 정부와의 법적 대결을 눈앞에 두고 국적변경을 인정한 ‘14명’ 중 ‘4명’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극적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카타 시장의 대반전은 드라마 속에서 고히데키가 가나이마 노인과 료 소년에게 ‘인도적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부키 MAT 대장의 명령에 따라 울트라맨으로 변신을 해서 가나이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무르치를 퇴치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좌절한 고히데키에게 괴수 퇴치를 명령하는 이부키 대장이 탁발승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탁발승의 모습으로

변신한 이부키 대장에 대해서, 고히데키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조 감독은 시나리오에도 없는 장면을 왜 이렇게까지 부자연스러운 설정을 연출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부키 대장의 포지션은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된다. 이부키 대장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평화기구 지구방위청 소속 일본지부의 대표인데, 이것은 MAT의 최고 정점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국적이 ‘조선’과 ‘한국’으로 분열된 원인에는 조선전쟁을 앞둔 1950년 3월에 자유진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GHQ의 주장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라는 국적란 표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일단 좌절했던 고히데키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이부키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야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괴수·무르치를 퇴치하는 장면은,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분열·고정화시킨 GHQ의 포지션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인의 입장에서 「괴수술사와 소년」을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를 경유하면서 사유하는 것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한국과 일본’ ‘재일조선인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일본/미국’이라고 하는 삼각구도 속에서 전후 GHQ의 재일조선인 정책이 국적변경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모순된 대응 속에 은밀히 밀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를 한일의 정치적 유착을 위한 수단과 조총련과 좌익의 방해공작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의 분열을 조장하고 고정화시켰다는 점에서, 현재 까지도 국적이 분열되어 있는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한국인은 언제까지나 피해자로서의 재일조선인에 동화할 수 없고, 또한 중립적인 포지션에 역시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비판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円谷プロダクション(2009.7)『ウルトラガイドブック』笠倉出版社, p.191
 宇野常寛(2011.10)『リトル・ピープルの時代』幻冬舎, p.166
 会川昇(1985.3)「尽きぬ上原作品の魅力」『24年目の復讐上原正三シナリオ傑作集』朝日ソノラマ, pp.432-433
 神谷和宏(2011.7)『ウルトラマンと「正義」の話をしよう』朝日新聞社, p.145
 切通理作(2000.6)『怪獣使いと少年』宝島社, p.205
 野村進(1996.12)『コリアン世界の旅』講談社, p.9
 上原正三(1985.3)「キミがめざす遠い星」『24年目の復讐 上原正三シナリオ傑作集』朝日ソノラマ, p.311
 神奈川県自治総合研究センター(1984.2)『神奈川の韓国・朝鮮人』公人社, pp.103-104
 姜徹編著(2002.7)『在日朝鮮韓国人史総合年表』雄山閣, p.454
 津村喬(1971.4)「田川市—<在日>の基本構造・序説」『現代の眼』, p.108

- 宮崎繁樹(1971.1)「在日朝鮮人の国籍登録変更—「韓国」籍から「朝鮮」籍書換えをめぐる—」『法律時報』, p.57
- 和田英夫(1971.5)「住民と国籍選択の自由—田川市の国籍書換え問題」『法学セミナー』, pp.76-77
- 외교통상부(2000)「朝鮮總連이 推進하고 있는 在日僑胞 国籍을 「朝鮮」으로 変更하는 問題」『재일교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문제, 1970』외교통상부, p.262
- 出版部(1971.4)「朝鮮人国籍—「田川方式」の決着」『世界』, p.122
- 小迫成明(1971.4.30)「田川市 国籍書換えで対決」『朝日ジャーナル』, p.110
- 長塚記者(1971.2.19)「急転した田川市の国籍書換え問題」『週刊朝日』, p.40
- 出版部(1971.2.12)「大国主義的 "ボス交" で処理」『朝日ジャーナル』, p.107
- 津村喬(1971.4)「田川市—<在日>の基本構造・序説」『現代の眼』, p.109
- 萩野芳夫(1971.1)「在日朝鮮人の国籍登録変更—「韓国」籍から「朝鮮」籍書換えをめぐる—」『法律時報』, p.60
- 山田恒史(1970.10.11)「"入管法"を前に朝鮮人問題を考える」『朝日ジャーナル』, p.12

논문투고일 : 2013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7월 21일

〈要旨〉

울트라맨과 재일조선인의 국적변경 문제

- 우에하라 쇼조 「괴수술사와 소년」을 중심으로 -

본고에서 고찰한 『돌아온 울트라맨』 제33화 「괴수술사와 소년」은 1966년에 방영된 제1탄 『울트라맨』 이래, 냉전 체제 하의 ‘동아시아 / 일본 / 미국’이라고 하는 삼각구도를 비유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주선을 찾는 모습을 동시대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재일조선인이 ‘한국’ 국적에서 ‘조선’ 국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려는 문제와 접점을 보인다. 국적변경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드라마 속에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우주선을 찾는 료 소년과 가나야마 노인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MAT 대원 고히데키만은 둘의 우주선 찾기를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국적변경 문제를 ‘도의적 입장’에서 변경을 인정한 타가와시의 사카타 시장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사카타 시장 역시 정부와의 법적 대결을 눈앞에 두고 극적으로 정부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반전은 드라마 속에서 고히데키가 가나야마 노인과 료 소년에게 ‘인도적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도 결국에는 이부키 MAT 대장의 명령에 따라 울트라맨으로 변신을 해서 가나야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무르치를 퇴치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부키 대장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평화기구 지구방위청 소속 일본지부의 대표인데, 이것은 MAT의 최고 정점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국적이 ‘조선’과 ‘한국’으로 분열된 원인에는 조선전쟁을 앞둔 1950년 3월에 자유진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GHQ의 주장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라는 국적란 표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일단 좌절했던 고히데키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이부키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야마 노인의 ‘분노’가 전위된 무르치를 퇴치하는 장면은,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분열·고정화시킨 GHQ의 포지션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Ultraman and Naturalization Issues of Koreans Residents in Japan

- Focusing on Uehara Shouzou “Monster and a Boy” -

The 33rd episode of 「The monster and a boy」 from 『Ultra Man Returns』 is Aired back in 1966, the 1st of the series 『Ultra Man』 was interpreted as a work that figuratively described triangular structure of ‘East Asia/ Japan/USA’ under cold war system. And the scene where Ganayama and Ryo were looking for the spaceship to go back to hometown when viewed in context in the same era displays nexus with issues for Korean(Cho Sun In) residents in Japan to change nationality from ‘Han Kook’ to ‘Cho Sun’.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Kohideki who is a troop on MAT troop before turns into Ultra Man understands and help two of looking for the spaceship and this is reminded of Takawashi the Mayor of Sakata who recognized the ‘change’ in ‘ethical point of view’ for the change of nationality issue. But Mayor of Sakata, too, dramatically compromise with the government. And such reversing of Mayor of Sakata coincides with the part where even though Kohideki felt the responsibility toward Ganayama and Ryo in ‘Humane point of view’ could not fulfill that point of view and after all under the command of MAT captain Ibuki, turn into Ultra Man and transposed Muruchi was eradicated by ‘angered’ Ganayama. But the part draws attention is the position of captain Ibuki. Captain Ibuki is USA on the highest pinnacle of MAT. And the reason for national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divided to ‘Cho Sun’ and ‘Korea’ is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expression ‘Korea’ as nationality in compliance with GHQ assertion to unity for free world in March of 1950 before Cho Sun (Korean)War.

In other words the scene where despaired Kohideki follows captain Ibuki’s command with US as a pinnacle ‘anger’ of Ganayama eradicating monster. Muruchi coincides with GHQ’s position that divided and immobilized nationality of Koreans reside in Japan.